

정부·기관 소식



농림수산식품부

• 친환경농업육성법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원화된 친환경 인증제도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일원화

앞으로 친환경 농식품 관련 인증제도가 하나의 법률로 일원화 되고 인증관리가 더욱 간편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친환경농산물), 식품산업진흥법(유기가공식품)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친환경수산물)으로 분산되어 운용되고 있는 친환경관련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인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업육성법」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 인증대상을 비식용 유기가공품으로 확대하고 인증기관 및 인증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수입유기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인증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법률명을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법률」로 개칭하고 유기식품 생산·가공뿐만 아니라 유기식품을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취급자도 포함하여 유기식품의 생산·판매 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유기식품인증에 관한 부실 인증을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기식품 인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인증기관 준수사항과 지정취소 규정을 신설하였다.

넷째, 수입유기식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국가명 표기를 의무화하고 외국과의 동등성 인증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친환경농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농촌진흥청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유기농어업용자재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를 구체화하여 법령에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다.

금번 법률개정으로 유기식품에 관한 육성 및 인증제도 운영이 일원화됨에 따라, 사업자는 한번의 신청만으로도 유기식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적인 기준과의 부조화에 따른 외국과의 통상문제 등이 한꺼번에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유기농산물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인증을 받고 유기가공식품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음으로써 이중 인증에 따른 비용 등 부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외국인 근로자 국경검역강화를 위한 MOU 체결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경검역 부문 등 상호협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장(임경종)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인력본부장(김남일)은 3월

10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국경검역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외국인근로자는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등 주로 구제역 및 AI가 발생·상재하는 국가에서 대부분 입국하고 있으며, 국내 축산농가 취업에 따른 사전 예방관리 철저 등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양기관간 MOU를 추진하게 되었다.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취업은 2010년 3만4천명에서 2011년 4만8천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번 MOU체결을 통해 인천지원의 국경검역 업무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근로자 출입국 지원사업과 연계되어 한층 강화된 국경검역 조치가 수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검역업무에 대한 이해증진과 긴밀한 상호협력체계를 유지·발전하기로 하였다.

농촌진흥청

‘사료용’ 옥수수 국산 품종 개발 수입종보다 우수한 ‘청다옥’, ‘다평옥’ 2013년 공급



농촌진흥청은 수입종보다 우수한 특성을 지닌 사일리지용 옥수수 품종 ‘청다옥’과 종실 사료용 옥수수 품종 ‘다평옥’을 개발해 사료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국산 사료용 옥수수는 수량이 적고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인식이 축산농가에 팽배해 있었지만, 최근에는 수입종보다 종자가격이 낮으면서 품질이 우수한 ‘광평옥’, ‘강다옥’, ‘장다옥’ 등의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축산농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종자가격(2010) : 국산 9,050원/kg, 수입산 13,000~16,000(수입산 대비 57~70%)

그러나 아직도 국내에서 재배되는 사료용 옥수수의 70% 이상은 수입종 옥수수인 P3394 등 10여 품종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개발된 사일리지용 옥수수 ‘청다옥’과 종실 사료용 옥수수 ‘다평옥’은 광평옥의 뒤를 이어 우리나라 사료용 옥수수의 국산화율을 높일 우수한 품종들로 주목받고 있다.

‘청다옥’은 건물수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삭이 달리는

위치가 낮아 쓰러짐에 강하고 수확기에 이삭아래 잎들이 늦게까지 푸르게 유지돼 사일리지에 적합한 품종이며, '다평옥'은 종실 사료용으로 종실수량이 많고 쓰러짐에 강한 품종이다. 또한, '청다옥'과 '다평옥'은 동시파종이 가능해 채종이 쉽고, 채종량이 10a 당 180kg와 276kg으로 기존품종들보다 각각 13%, 73% 많아 채종농가에서도 선호할 품종이다.

올해도 옥수수 국제가격 상승이 사료비 상승의 주원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농촌진흥청에서는 축산경영인들에게 사료비용 절감을 위해 옥수수 등 사료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전작과 손범영 연구사는 “청다옥”은 기존 수입 사료용 옥수수에 비해 쓰러짐에 강하고 후기녹체성 등이 우수해 사일리지에 적합한 품종이므로, 향후 수입 사료용 옥수수 품종을 대체해 사료용 옥수수의 국산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다옥’과 ‘다평옥’은 현재 품종출원 중이므로 실시권 처분시, 빠르면 2013년부터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며, 종자구매 관련사항은 종자 생산이 완료되면 공고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지열’ 이용 축사 난방시설 보급 길 열려

보조 80% 자부담 20%, 시·군청에서 신청 받아

축산농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인 지열을 이용한 난방 시

설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신재생 에너지인 지열을 이용한 축사를 난방하는 기술을 개발해 연료비는 줄이고 생산성은 좋아졌다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열난방시설을 설치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열난방장치는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을 난방에 이용하는 기술로써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해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특히 지하수에 저장된 열을 이용하며 12~25℃의 열을 히트펌프에서 변환 해 여름철에는 10~15℃로 낮추어 난방에, 겨울철에는 45~50℃로 가온해 난방에 이용한다.

지열난방계사의 경우 관행난방계사에 비해 연료비가 줄고 계사 내부 유해가스 농도도 감소됐으며 출하체중은 높아졌다. 5만수(2,691㎡) 규모의 무창 육계사 기준으로 연간 관행난방을 할 경우에는 2만 7,382ℓ의 경유가 소요됐으나 지열난방은 5,428ℓ의 연료를 소모해 80%의 연료를 절감했다.

특히 계사 내부의 암모니아가스,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농도는 30~40% 낮출 수 있었다.

이렇게 유해가스 농도가 낮아지면서 출하체중도 좋아져 관행난방 5주령시 1.9kg, 6주령시 2.38kg인데 비해 지열난방 계사는 5주령 2.0kg, 6주령 2.5kg으로 5%의 증체 개선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지열난방시스템은 설치비가 비싸고 초기에 목돈이 필요해 농가에서 설치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 올해부터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농가설치를 지원하고자 대상농가 신청을 받고 있다.

본 사업은 보조 80%(국비 60%, 지방비 20%), 자부담

20%로 각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축산업 중 양돈업 및 닭(오리) 사육업을 등록한 경우로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무창계사·돈사·오리사육 시설의 판넬 구조는 최소 두께 50mm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신규로 축사를 설치할 예정인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우 시공업체와의 계약서가 있으면 된다.

- 오리농가 : 축산업(오리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5,000수 이상인 농가
- 양돈농가 : 사육규모 1천두 이상 농가(종돈장, AI센터 등은 사육규모 제한 없음)
- 양계농가 : 축산업(닭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30,000수 이상인 농가

가축위생방역본부

초동방역 강화 위한 전화예찰사업 시행 국내 모든 가축 사육농가 대상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배상호)는 구제역·고병원성AI 등 가축전염병의 조기 검색 및 초동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전화예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역본부는 800명의 전담요원을 확보, 3월부터 국내 모든 가축 사육농가 30만여 호에 대해 10일 간격으로 전화예찰을 실시한다. 특히 구제역·고병원성AI 역학관련농가는 임상증상 체크 매뉴얼에 따라 집중관리 대상으로 두고 더욱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예찰전담요원은 방역본부 8개 도본부에서 서류전형 및 대면면접을 통해 경기 53명, 강원 78명, 충북 57명, 충남 103명, 전북 67명, 전남 153명, 경북 157명, 경남 132명을 각각 선발했다.

방역본부는 우선적으로 지난 3일 도본부 과장과 전화예찰 행정요원 등 24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이어 3월 7일~9일까지 3일간 전 예찰요원을 대상으로 전화예찰사업추진에 필요한 가축질병정보, 예찰요령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선발된 예찰전담요원은 1인당 일일 120호 이상을 전화로 예찰하게 되며 예찰프로그램에 따라 농장 일반현황, 항목별 가축의 임상증상에 대해 질의해 축산농가의 응답내용을 실시간으로 전산 입력한다.

예찰요령은 체온·사료섭취·발육상태·폐사 등 가축상태를 파악한 후 이상상황이 확인되면 질병별 예찰프로그램에 따라 구제역·고병원성AI 등 주국가축전염병별 임상증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질의하게 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방역본부 소속 방역사가 농장을 직접 방문해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2011년 제1회 축산물HACCP 미생물검사 실습교육 실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하 기준원, 원장 석희진)은 2011년 3월 16일부터 3일에 걸쳐 기준원 위생검사



실에서 ‘2011년도 제1회 축산물HACCP 미생물검사 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미생물검사 실습교육은 금년에 계획된 10회 교육 중 첫 번째 교육으로, 전국의 총 12개 업소(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알가공업소) 12명이 참석하였다.

교육진행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최영진 사무관의 “HACCP 개요 및 고시해설”을 시작으로 일반세균·대장균(군)·살모넬라 검사를 위한 검사시료의 채취방법, 미생물 검사 요령 및 검사결과 판정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1:1 실습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교육생은 실습 위주의 미생물 검사교육을 통해 작업현장의 HACCP 운용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석희진 원장은 미생물검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들에 대하여 소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하였고, 이후의 남은 9회의 미생물 검사 실습교육도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산 납치, 스테이크로 뉴욕 가다 농식품부·aT “다양한 요리로 미국 수산물 시장 개척

한국산 수산물 요리 홍보행사가 뉴욕 특급호텔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농림수산물부와 aT(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하영제)는 한국산 양식수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 위치한 프라자호텔(Plaza Hotel)에서 요리 홍보행사를 갖었다.

이날 행사는 최종 구매자인 외식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전 마켓테스트의 의미가 있다.

미국의 유명 요리사이자 TV쇼 진행자인 Todd English가 행사진행을 맡아 납치, 전복, 미역 등 한국산 수산물로 납치 스테이크, 버터전복구이 등 직접 코스요리를 만들어 소개할 예정이다.

납치는 미국에 연간 284톤(6백만불)을 주로 고가의 횡감용으로 수출되고 있고, 특히 앞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개발한 육종납치가 보급되면 생산원가에서도 미국의 할리벳과 경쟁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복과 미역은 주로 동양에서만 소비되지만 현지 요리에 활용될 경우 시장을 넓혀 양식어가에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aT는 이날 트루월드, 씨스코 등 수산물 식재료 유통업체 및 현지포인트 수산물도매시장의 관계자와 수출

간담회를 실시하고 미국 동부지역에 대한 수산물 수출 판로 개척방안을 모색했다.

하영제 aT 사장은 “양식 수산물은 어가소득을 좌우하는 중요한 품목이므로 노르웨이 연어처럼 세계시장에서 널리 소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마켓테스트를 실시할 것” 이라면서 “한국 수산물에 대한 현지인들의 평가를 향후 수출상담 및 홍보 시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농협

「가축 재입식 요령」 교육 동영상 1만장 제작 배포

구제역 매몰농가, 지자체, 관련기관·단체·협회, 지역축협 등에 배부

농협은 포스트 구제역 대책의 일환으로 축종별(한우, 젓소, 돼지) 「가축 재입식 요령」을 알리는 교육용 동영상 CD 1만여 장을 제작하여 구제역 매몰농가, 축협, 지방자치단체, 축산관련기관·단체·협회 등에 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배부된 교육용 동영상 CD는 축사 내외부,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청소·소독, 소각·매몰 등의 처리방법을 농림수산식품부의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현지 농장에서 직접 시연해 보인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축사내부 청소 및 소독, ②농장내 시설 및 주변지역 소독, ③가축분뇨 처리, ④성공적인 재입식 준비에 대해 축종별, 단계별로 설명하였고, 이 과정에

수반되는 소독약 조제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가축분뇨 처리방법 등을 축산농가가 쉽게 이해하여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현장감 있게 시연하였다.

청소·소독, 분뇨처리 등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동영상으로 시연해 보여줌으로써 축산농가들에게 다시 한 번 철저한 방역의 의미를 일깨워 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동영상은 축산사이버컨설팅 홈페이지 (<http://livestock.nonghyup.com>)에서도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축산컨설팅부 송택호 부장은 “이번 동영상 배포가 구제역을 포함한 악성 가축질병을 근절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축산농가가 재입식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 등에 최대한 힘쓰겠다”고 밝혔다.

